

| | | |
|---|--------------------|--|
|  |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 보고서 |  <small>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small> |
|---|--------------------|--|

| | | | |
|---------|---|----|--|
| 소속 | (대학) (학과<부>) (학년) | | |
| 성명 | | 학번 | |
| 참가 프로그램 | 중국CSL어학연수 | | |

(프로그램 참가 종료 귀국 후 국제협력팀에 제출하며,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술)

1. 외국에서의 학습 및 체험 활동 내용

1) 학습활동

베이징어언대학교 한어학과 소속으로 일주일 중 5일 동안 4시간 이상씩 수업을 들었다. 수업은 듣기, 말하기, 작문, 독해, 종합 수업으로 나뉘져 있다. 종합수업은 듣기, 말하기, 작문, 독해를 종합적으로 배웠던 수업이었다. 수업시간 중에는 말하기와 독해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였고, 매일 수업이 끝나고 본문과 관련된 주제로 150자 이상 작문을 하는 과제가 있었다. 말하기 수업은 단어와 대화문을 따라 읽고 교수님이 발음을 교정해주셨다. 말하기 수업은 발표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다른 수업보다 학생들의 수업참여비중이 높은 수업이었다. 매 수업마다 한명씩 중국에 대해 주제를 정하여 발표하는 과제가 있었다. 듣기와 독해수업은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정해진 시간 내에 풀고, 풀이는 학생들이 하나, 많이 틀린 문제는 교수님이 풀이해설을 해주신다. 듣기수업도 중국영화나 드라마를 소개하는 발표과제가 있었다. 작문수업은 문장부호, 비슷한 한자, 틀린 문장에 대해 고쳐본 후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400자 이상 작문을 하는 수업이었다. 작문 후 제출을 하면 교수님께서 문장을 고쳐주시거나, 좋은 표현들을 알려주시면서 작문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셨다.

2) 체험활동

중국에서 체험 활동으로는 베이징에서 유명한 곳들을 다녀왔다. 천안문을 간 날에는 천안문 구경을 하고 난 후 근처에 있는 난궈구상이랑 쓰차하이로 갔다. 난궈구상은 베이징을 대표하는 후통거리 중 하나이다. 난궈구상은 먹거리가 많은데 사람들은 손에 탕후루나 버블티등 먹거리를 들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쓰차하이는 시하이, 허우하이, 첸하이의 3개 호수와 그 연안을 통틀어 가리키는 지명이다. 쓰차하이에 가면 중국 전통의 향기가 묻어나는 거리와 낭만적인 호수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곳이다. 쓰차하이를 해 질 때 다녀왔는데 해가 지니까 거리에는 불이 켜져 잔잔한 호수와 어우러져 더 아름다웠다. 싰리툰은 주변에 대사관들이 많아 싰리툰에는 외국인들이 많다. 중국적이면서도 서구적 분위기의 트렌디한 상점들이 많아 쇼핑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 싰리툰에는 외국브랜드 상점들이 많아서 더 친숙하게 갔던 곳이다. 올림픽공원 학교와 가깝게 올림픽 공원이 있다. 자전거타고 이동하면 30분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올림픽 마스코트들의 형상물들이 곳곳에 전시되어있어 올림픽의 여운을 느낄 수 있었다. 올림픽공원 안에 올림픽삼림공원의 큰 공원이 있다. 이곳에는 작은 놀이공원과 큰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서는 오리배를 탈 수 있다.

798예술구는 과거에 구소련의 지원을 받은 무기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예술인들이 모여 예술구역으로 바뀌었다. 798예술구에는 798예술구에는 요즘 유행하는 카페와 빵집이 많은 곳이다.

중국사람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많이 타고 다니는 만큼 거리에는 공용자전거가 많다. 가격도 일주일 정기권이 8위안으로 매우 저렴하며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중국의 대중교통 지하철과 버스도 매우 저렴하다. 버스는 1위안이며 지하철은 5위안이다. 대중교통이 저렴하고 쾌적해서 자주 이용했다.

2. 참가 성과

처음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중국어 실력과 중국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 채로 도착하여 격리생활을 하였는데, 3개월동안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일상대화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어 실력이 늘었다. 보다 더 중국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3. 본 프로그램 참가 후 느낀 점

언어를 배우려면 그 나라에 가서 직접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실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걸 느꼈다. 공부를 하면서 표현이나 문장들을 공부해도 실제로 쓰려면 기억이 나지 않거나 상황에 맞는 표현들을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직접 생활을 하고 현지인들과 대화를 통하여 표현과 문장들을 배웠다. 역시 중국답게 어디를 가나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놀 곳, 구경할 곳도 많았다. 많은 곳을 가보진 않았지만, 가는 곳 마다 새로워서 재미있었다. 중국인은 불친절하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굉장히 친절했다. 택시를 타면 한국인이라고 하면 베이징에 대해 소개해 주셨다. 이렇게 우연치 않게 현지인이랑 대화를 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베이징이 봉쇄가 되어 학교에서 한달동안 갇혀 살면서 베이징을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하지만 한국 귀국 준비를 하면서 담당선생님, 운송업체나, 여행사와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하여 연락을 자주 했었는데 이 시기에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한다. 6개월이라는 짧은 중국 생활을 더 짧게 해서 아쉽지만 중국 생활하는 동안은 낯설지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번에 못가본 곳들을 가보고 싶다.

4.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1) 학업계획

2022년 여름방학 내에 hsk5급 자격증 취득

졸업전 hsk6급 자격증 취득

2) 진로계획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여 홍보 및 대외 업무 관련 취업

5. 활동 사진(4장 이상)



천안문



이화원



베이징국가체육관



798예술구



798예술구



천단공원

상기와 같이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를 보고합니다.